

《女人》에 나타난 翟永明的 성별의식과 서사방식*

鄭雨光**

..... < 목 차 >

1. 들어가며: 왜 자이융밍인가?
2. 《여인》의 구성과 (어머니)를 통해 본 서사 방식
3. 黑夜의 의식
4. 결론을 대신하며: “완성 후에는 또 어떠하지?”

1. 들어가며: 왜 자이융밍인가?

2005년 4월 개봉한 <실비아Sylvia>란 한 편의 영화가 있다. 영화 속 그녀의 삶과 너무나 흡사했던 실비아의 시편들, 기네스 펠트로란 배우의 뛰어난 연기 등이 기억에 남는 매우 슬픈 영화였다. 이 영화는 32세의 젊은 나이에 가스오븐에 머리를 박고 자살한 페미니스트 실비아 플라스Sylvia Plath(1932-1963)¹⁾란 시인의 삶의

* 본 연구는 숙명여자대학교 2006년도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 숙명여자대학교 중어중문학 전공 부교수, wkjung@sookmyung.ac.kr

1) 미국의 대표적인 여성 시인인 실비아 플라스는 보스턴대학 생물학 교수이자 망벌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였던 아버지 오토 에밀 플라스Otto Emil Plath와 학교 선생이었던 어머니 오렐리아 쇼버Ourelia Schober 사이에서 첫째 딸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독일계로, 결혼 후 어머니가 교사로서의 일을 포기하고 전업주부가 될 정도로 가부장적인 권위가 높은 사람이었다. 그녀가 8살 때 신과도 같던 아버지가 갑자기 악성 당뇨병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고 가정은 곧 경제적으로 곤경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충격으로 그녀는 이듬해 첫 번째 자살 시도를 벌인다. 그 후 삶의 불행을 학업에 대한 불굴의 의지로 극복하고자 한다. 1950년 스미스 대학 Smith College을 장학생으로 입학한 그녀는 이미 400여편의 시를 썼으며, 1952년 8월 <마드모아젤Mademoiselle>지에 단편소설 <민튼 씨네 집에서의 일요일Sunday at the Mintons>을 투고하여 당선되었고, 1953년부터 <마드모아젤>의 객원 편집기자로 뉴욕에서 활동한다. 당시 유명인사들에 대한 취재는 그녀의 삶을 오히려 권태롭고 공허하게 만든다. 이 시기에 신경쇠약

여정을 감성적이면서도 설득력 있게 그리고 있다. 그녀의 열정적이고 고독했던 삶의 체험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들의 보편적 정서에 충격과 혼란을 가중시켰지만 한편으로는 분명 어떠한 공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가슴 속에 꿈틀대는 무엇인가를 느끼기에 충분한 마음의 울림과 전율을 가져다주었다.

실비아 플라스가 이차대전 후 주춤했던 서구 페미니즘 운동을 더욱 촉발시키면서, 남성들의 오만과 편견 속에서 죽어가야만 했던 반세기전 서구 여성 시인의 상징으로 존재한다면, 자이융밍翟永明(1952-)은 80년대 중국 문단에 집단적으로 출현하기 시작한 대규모 '여성 시가'의 원인이요 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자이융밍의 시가 실비아 플라스의 독백체와 성별의식을 강조하는 사적 어조에서 많은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한 결과로 자이융밍의 시에서도 자기 학대적인 개성의 표현, 자포자기적 정신 분열증의 노출, 광기적인 심태의 묘사, 미묘하게 꿈틀거리는 환각 등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동서양의 문화적인 공간상의 차이와 50년대와 80년대란 시간상의 차이로 말미암아 자이융밍의 시에서는 실비아 플라스와 차별적인 독특한 시 세계가 구현되고 있다.

중국은 신문학 운동 이래 빙신冰心(1900-1999), 린후이인林徽因(1904-1955), 정민鄭敏(1920-), 천징룽陳敬容(1917-1989), 수팅舒婷(1952-) 등 걸출한 여류 시인들이 많이 등장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넓은 의미에서 한 여성의 개인적인 생활 체험을 시로 승화시킨 것이었지 남성과 여성이란 이원대립적인 시각에서 억압된

중에 걸린 그녀는 쉰 앞의 수면제를 먹고 두 번째 자살을 시도한다. 1955년 스미스대학을 최우등으로 졸업하여 풀브라이트 재단 장학금을 받고 케임브리지의 뉴햄대학Newham College에 수학한다. 이 때 영국의 시인 테드 휴즈Ted Hughes(1930-1998)를 만나 첫눈에 반하게 되고 1956년 결혼한다. 모교인 스미스대학에서 연봉 4,200달러의 영문학 강사직을 제의받고 그녀는 남편과 함께 도미하여 1957-58년까지 보스턴에 머문다. 1959년 12월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 런던의 프리로드 힐 근처의 아파트에 머물게 되고, 곧 딸 프리다Frieda를 출산하게 된다. 1961년 거처를 데번Devon으로 옮기고 그들의 결혼 생활은 삐걱거리기 시작한다. 결국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알게 된 그녀는 결혼 생활의 파국을 선언하게 된다. 아들 니콜라스Nicholas가 태어난 해인 1962년 10월부터 남편과 별거에 들어가 런던의 아파트에서 두 애들과 살게 된다. 별거 후 우울증과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던 그녀는 1963년 2월 11일 서른 두 살의 나이로 옆방에 세 살과 두 살짜리 아이들이 먹을 우유를 췌겨놓고는 가스오븐 속에 머리를 넣고 생을 마감한다. 대표시집으로 <에어리얼Ariel>, 자전적 소설로 <종 모양의 병The Bell Jar> 등이 있고, 남편인 테드 휴즈가 프랜시스 매컬로우와 공동 편집해 1986년 출판한 <실비아 플라스의 일기The Journals of Sylvia Plath>가 그녀의 삶에 대해 말해주고 있다.

여성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은 아니었다. 물론 이들의 시에서도 제재의 사용이나 정감의 표현 방식, 시적 사유 방법 등에 있어서 여성 특유의 이미지나 어조, 언어 등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에서 오랫동안 억압받았던 다른 하나의 세계를 폭로하고 그것을 새롭게 해석하려는 시도는 없었다. 따라서 이들의 시를 진정한 의미에서 ‘女性詩歌’라고 정의하기에는 부족함이 많다.²⁾ 그러나 자이융밍, 이레이伊蕾(1951-), 탕야핑唐亞平(1962-) 등의 문체작들이 80년대 중반 집단적으로 문단을 강타하면서 이에 대한 분석과 평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들의 시에 대해 종전의 여류 시인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선명한 여성 의식이 두 가지 면에서 집체적으로 유지·확장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시각인데, “하나는 男權에 대한 반발과 비판이요 하나는 여성 자신만의 언어를 구축한다는 점이다.”³⁾

80년대 초반 베이다오北島(1949-)와 수팅으로 대표되는 ‘몽롱시朦朧詩’는 “문화대혁명의 콤플렉스를 발산하는 집단적 잠의식 현현”이기 때문에 그들의 ‘자아’는 집체적이고 ‘大我’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들에 대한 문예사적 자리매김이 끝나기도 전인 80년대 중반부터 ‘신생대(第三代) 시인들’이 우후죽순처럼 등장한다. 이들은 反英雄·反崇高란 가치 관념과 과도한 이미지의 사용과 은유의 강조에 반대하는 ‘小我’적 개체성을 중시하는 예술 이념을 표방하며 ‘몽롱시’에 도전한다.⁴⁾ 개인의 진솔한 일상의 느낌들을 빈정댐과 비꼬, 허무로 분출하고자 했던 ‘신생대 시인들’의 출현은 자연스럽게 여성 시인들에게도 영향을 주어 그들의 성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성별에 대한 인식은 여성의 신체에 대한 관심과 자유로운 성적 욕구의 발산, 더 나아가 ‘여성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2) 唐曉渡도 진정한 의미의 ‘女性詩歌’는 남성에게 의해 장기간 은폐되었던 다른 하나의 세계를 드러내 보이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이미 형성된 세계 질서를 새로이 해석하고 새로이 창조하는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본다. 唐曉渡 著, 《唐曉渡詩學論集》(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1), 210쪽 참조.

3) 李蓉, 〈20世紀中國女性詩歌主體意識發展概觀〉, 《浙江師範大學學報(社會科學版)》(2003년 2기, 제 28권), 21쪽 참조.

4) ‘朦朧詩’와 ‘신생대 시인들’의 관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는 즐고, 〈危機의 詩學: 90년대 시인들의 世紀末 意識〉, 《中國現代文學》 17 (1999), 241-262쪽과 〈朦朧詩 이후-세기말 중국 시단의 새로운 미학원칙들〉, 《中國現代文學》 20 (2001), 149-167쪽 참조.

라는 존재론적 물음에까지 확장되고 있다.

‘신세대’ 시인들의 한 갈래로 출현한 대표적인 여성시인들로 자이융밍, 탕야핑, 이레이 등을 들 수 있다.⁵⁾ 자이융밍은 1984년에 《여인女人》이란 시집을 완성했는데, 20수의 연작시로 모두 4집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시들은 여성 특유의 생명 체험과 생존 의식을 사적이고 독백적인 어조로 글에 투영시키고 있다. 탕야핑은 1985년 《흑색 늪黑色沼澤》, 《흑색 동굴黑色洞穴》이란 시집을 발표하여 여성의 자유로운 자위행위와 성적 욕구의 발산을 표현했고, 이레이는 1987년 《독신 여인의 침실獨身女人的臥室》이라는 연작시를 통해 여성의 독특한 자아와 심리 공간 그리고 그녀를 억압하는 부조리한 세계에 대하여 끊임없는 걱정과 절망감으로 반항하고 있다. 이들에게 특이한 현상은 마치 약속이나 한 듯 ‘흑색’이란 색조를 사용하여 ‘여성’ 또는 ‘여성의 운명’을 상징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또한 이들의 시는 여성 특유의 온유함이나 섬세함과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이들의 절규에 가까운 몸부림은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성별 억압에 따른 절망과 고통을 이미 체험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것은 그들 삶 속에 오랫동안 각인되었던 보편적 문제에 대한 보편적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문학사적 배경을 가지고 탄생한 자이융밍의 시는 그녀가 등장하기 전의 여류 시인들과 풍격이 사뭇 다르다. 溫婉과 典雅로 대표되는 이전의 여류 시인들과 차별을 보이는 그녀만의 성별의식과 서사방식을 살펴보기 위해 2장에서 《여인》이란 시집의 전체적인 구성과 내용을 개괄적으로 본 후, 그녀만의 독특한 글쓰기의 대표작이랄 수 있는 〈어머니母親〉를 분석하고자 한다. 3장에서는 《여인》이란 시집의 기저에 놓인 성별의식인 ‘흑아의 의식’이 무엇이고 이것이 그녀의 시들에 어떻게 투영되는지 본격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결론에서는 《여인》시집의 마지막 수인 〈끝結束〉을 살펴보면서 그녀가 《여인》이란 시집에서 의도했던 여성 자아의 정체성 문제와 더불어 서사 방식의 의의도 언급하고자 한다.

5) 洪子誠은 80년대 中后期 ‘女性詩歌’ 운동을 주도한 대표적인 시인들로 언급한 세 시인을 포함하여 왕샤오니王小妮(1955-), 루이민陸麗敏(1962-) 등을 추가하고 있다. 洪子誠 劉登翰 著, 《中國當代新詩史》(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5), 228-233쪽 참조.

2. 《여인》의 구성과 <어머니>를 통해 본 서사 방식

《여인》이란 시집은 序言인 <흑야의 의식黑夜的意識>과 모두 4집으로 구성된 연작시이다. 第一輯에 <예감預感>·<억측臆想>·<순간瞬間>·<황폐한 집荒屋>·<갈망渴望>을, 第二輯에 <세계世界>·<어머니母親>·<야경夜境>·<동경憧憬>·<악몽噩夢>을, 第三輯에 <독백獨白>·<증명證明>·<가장자리邊緣>·<칠월七月>·<가을秋天>을, 第四輯에 <회전旋轉>·<인생人生>·<침묵沈默>·<생명生命>·<끝結束>을 각각 수록하고 있다. 이 네 부분은 모종의 시간상의 경과를 반영하고 있다. 말하자면 第一輯에서는 ‘흑야의식’이 싹트고 있는데, 장기간 은폐되어 있던 여성의 내면세계가 열리고 있다. 第二輯에서는 자신의 운명을 반성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흑야의식’이 만들어 진다. 第三輯에서는 ‘나’와 ‘너(異性)’의 관계를 말하고 있다. 第四輯에서는 이성으로 등장했던 ‘너’는 기본적으로 퇴장하고 ‘나’는 ‘흑야의 의식’으로 말미암아 점차 평온해지고 있다.⁶⁾ 이러한 모종의 시간상의 경과를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볼 때 각 시들 사이의 논리적인 관계는 다소 미흡하다. 무수한 반복을 사용하며 그동안 억압받고 감추어져 있던 여성 자신의 은밀한 세계를 심층적으로 끊임없이 되물으며 끊임없이 호소하고 있다. 여성의 고유한 정감과 친밀한 어투를 바탕으로 여성의 자아세계에 대하여 한 여성의 개인적인 시각으로만 탐닉하고 있다. 여성이기에 체득해야만 했던 인생의 고통을 찰나적인 이미지들을 사용하여 무질서하고 파편적으로 표현한다. 그리하기에 어떤 때에는 작가의 의도가 모호하기도 하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기존의 남성적 글쓰기에 대항하는 광기어린 여인의 고독한 외침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여성의 특수한 자아세계를 대변하기 위하여 독백체의 글쓰기를 감행하고 있는 것이 좋은 예라 하겠다.

《여인》은 현실 생활 속에서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작가 자신의 절

6) 徐健, 〈翟永明: 在黑夜中獨白〉, 《詩藝隨筆》(2005.9), 31쪽 참조.

망과 몸부림을 여과 없이 드러낸 시집이다. 그러하기에 일종의 정신 분열적인 격정과 광기가 넘쳐나기도 하지만, 실비아 플라스식의 자기 파괴적일 정도의 극렬한衝動과 自虐과는 거리를 유지한다. 오히려 이 시들의 광기 의식은 삶에 대한 애착을 보여주며 그 바탕에는 성별 의식에 대한 작가 자신의 냉정한 평형각각이 자리하고 있다. 따라서 그녀의 시는 더욱 큰 파괴력과 설득력으로 다가온다. 좋은 예로 《여인》 第二輯의 <어머니母親>란 시를 보면, 고통과 광기 속에서도 여성으로서의 탄생·사랑·죽음·삶 등을 그녀가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다. 이 시에서 등장하는 어머니의 형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성애적인 어머니는 아니다. 여기서 시적 화자인 딸은 어머니의 님은꼴이고, 딸은 어머니와 동일한 운명을 걷게 되는 것에 상당한 분노와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다.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모녀지간의 복잡한 심리적 애증 관계를 미묘하게 포착하고 있는 이 시는 여성성에 대한 여성으로서의 입장을 잘 대변하고 있다.

힘도 없이 가야할 곳이 너무 많았지요, 다리가 아파요, 어머니, 당신은
 제게 탐욕스런 아침노을 속에 오래된 哀愁에 잠기는 걸 가르쳐 주지 않았지요, 제
 마음은 단지 당신을 닮았지요

당신은 저의 어머니시지요, 저는 심지어 당신의 혈액, 여명이 뿜어내는
 피바다 속에서 당신이 깜짝 놀라 당신 자신을 발견케 했지요, 당신은 저를 깨어나
 게 했지요

이 세상의 소리를 듣도록, 당신은 저를 낳으셨지요, 당신은 저와 불행이
 이 세상의 무시무시한 쌍둥이가 되게 했지요, 오랜 세월 동안, 저는 이미 오늘 밤
 울음소리를 기억할 수 없었지요

당신을 受胎케 한 광망, 얼마나 까마득하고, 얼마나 의심스러웠나요, 삶과 죽음
 사이에 서서, 당신의 눈은 흑암을 꺼안고, 발아래로 진입하는 그림자는 어찌면 그
 토록 무거웠나요

당신의 품속에서, 일찍이 저는 수수께끼의 답과도 같은 웃음 띤 얼굴을 지었지요,
 누가 알겠어요,
 당신이 저에게 童貞의 방법으로 모든 걸 이해시켰다는 걸, 그렇지만 저는 오히려

무덤덤했지요

저는 이 세상을 처녀로 여겼지요, 설마 제가 당신이 내는
쾌활한 웃음소리에 대해 충분한 여름을 불태우지 못했을까 봐요? 못했을까 봐
요?

저는 세상에 버려졌지요, 홀홀 단신으로, 태양 광선은 애통하게
저를 뒤덮고 있지요, 당신이 세상에 허리를 굽혔을 때 당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아
시는지요?

세월은 저를 멧돌 속에 넣었지요, 제 몸이 뺨아 부서지는 걸 눈으로 직접 보았지요
아, 어머니, 제가 결국 침묵으로 변할 때, 당신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나요?

제가 흔적도 없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아무도 모르지요, 이 비밀은
제가 당신의 일부분이란 것이지요, 제 눈은 고통스럽게 당신을 바라보는 두 개의
상처지요

살기 위해 살아가지요, 저는 멸망을 자초하지요, 미증유의 사랑에 대항함으로써
둘 하나가 던져 버려지고,骨髓처럼 바싹 말라버렸을 때, 이 세상에는

고아가 있지요, 일체의 축복을 남김없이 폭로하는, 하지만 누가 분명히 알겠어요
무릇 어머니의 손에 서 있던 사람이, 결국 탄생으로 인해 죽어간다는 걸⁷⁾

1연은 삶에 지친 딸(‘저’)이 어머니(‘당신’)에게 애증이 고루 섞인 복잡한 감정을

7) 翟永明 著, 《翟永明詩集》(成都: 成都出版社, 1994), 18-20쪽 참조. 无力到达的地方太多了, 脚在疼痛, 母亲, 你没有/ 教会我在贪婪的朝霞中染上古老的哀愁. 我的心只像你// 你是我的母亲, 我甚至
是你的血液在黎明流出的/ 血泊中使你惊讶地看到你自己, 你使我醒来// 听到这世界的声音, 你让我
生下来, 你让我与不幸构成/ 这世界的可怕的双胞胎. 多年来, 我已记不得今夜的哭声// 那使你受孕
的光芒, 来得多么遥远, 多么可疑, 站在生与死/ 之间, 你的眼睛拥有黑暗而进入脚底的阴影何等沉重
// 在你怀抱之中, 我曾露出谜底似的笑容, 有谁知道/ 你让我以童贞方式领悟一切, 但我却无动于衷//
我巴这世界当作处女, 难道我对着你发出的/ 爽朗的笑声没有燃烧起足夠的夏季吗? 没有?// 我被遗
弃在世上, 只身一人, 太阳的光线悲哀地/ 笼罩着我, 当你俯身世界时是否知道你遗落了什么?// 岁
月把我放在磨子里, 让我亲眼看见自己被碾碎/ 呵, 母亲, 当我终于变得沉默, 你是否为之欣喜// 没
有人知道我是怎样不着痕迹地爱你, 这秘密/ 来自你的一部分, 我的眼睛像两个伤口痛苦地望着你//
活着为了活着, 我自取灭亡, 以对抗亘古已久的爱/ 一块石头被抛弃, 直到像骨髓一样风干, 这世界//
有了孤儿, 使一切祝福暴露无遗, 然而谁最清楚/ 凡在母亲手上站过的人, 终会因诞生而死去

드러내면서 시작한다. 벌겋게 밝아오는 아침노을 속에서 딸은 여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삶의 굴레인지 어머니에게 하소연하고 있다. 하지만 딸은 곧 자신이 어머니의 뱀은뿔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이러한 딸과 어머니의 미묘한 애증 관계는 시가 진행되면서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어머니에 대한 애정은 같은 여성으로서의 유사성과 동일성에서 비롯된 것이고, 미움은 단지 고통만을 얻게 하기 위해 자신을 이 세상에 낳아준 어머니에 대한 원망에서 비롯된다. 더구나 이러한 애증은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매일 하루가 밝아오면서 느껴지는 반복적인 고뇌인 것이다.

2연부터 마지막 연까지 이 시의 화자인 '저'는 탄생 시기부터 유아기, 소년기, 숙녀기, 노년기 등을 걸치면서 여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잔인한가를 독백적이고 분노에 찬 어조로 고백하고 있다. 탄생부터 피로 맺어진 어머니와 딸의 일체성의 고리는 여성성이 갖는 '무의미한 타자'라는 전통적인 인습에 의해 운명적 공동체라는 인식을 강화시킨다. 딸을 낳은 것은 어머니 입장에서는 '당신 자신을 발견'한 것이고 심지어 당신이 겪었던 '불행'과 '쌍둥이'가 될 아이를 얻은 것이었다. 딸에 대한 이러한 파괴적인 음모에 마치 어머니가 참여한 것처럼 4연에서는 어머니의 受胎에 대한 원망과 의심이 드러난다.

5연부터는 어머니의 '품속'에서부터 여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에 길들여지는 딸의 운명에 대해 반항과 조소를 퍼붓는다. 여성에게 강요되는 '童貞의 방법'과 '처녀'의 순결성을 다름 아닌 어머니로부터 학습 받기에 딸의 상처는 더욱 큰 것이다. '세월'과 더불어 딸의 상처는 뱀돌 속에서 몸이 뺨아 부서지는 것과 같은 고통으로 다가오지만 어머니는 침묵만을 강요할 뿐이었다. 상처 받기 쉽고, 침묵을 강요당하고, 순결을 지켜야하는 딸에게 어머니는 더욱 자기편이 아니었고 자기 불행에 대한 공범임에 틀림없었다.

9연에서 원망과 증오에 찬 딸의 어조가 갑자기 부드러워지고, 그 부드러움은 10연과 마지막 연에서 형용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감에 의하여 끝내 사라져버린다. 어조가 갑자기 부드러워지는 까닭은 딸이 어머니에 대한 비밀스런 사랑을 고백했기 때문이다. 딸이 어머니에게 느끼는 사랑과 연민은 자식이기 때문이고 삶에 대한 여성으로서의 동질적인 아픔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하기에 시 속에서 "제 눈은

《女人》에 나타난 翟永明的 성별의식과 서사방식 201

고통스럽게 당신을 바라보는 두 개의 상처”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으로서가 아닌 여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멸망을 자초하기 위해 사는 것이라고 말한다. 여성성에 대한 반항 속에서 고아가 되어버리는, 탄생의 축복조차도 남김없이 폭로해야만 하는, 어머니에 의해 낳아지고 길러졌지만 결국 탄생으로 인해 죽어가야만 하는 여성의 운명을 거침없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형식적인 면에서 이 시는 《여인》의 다른 시들처럼 시의 앞선 행의 뜻·구문이 다음 행에 걸쳐서 이어지는 ‘구결치기’가 사용되고 있다. 그 시적 효과는 “연과 연, 행과 행 사이에 숨 가쁜, 물 흐르는 듯한, 긴장된 구문들을 창조하는 것”인데, “이러한 구문론적 유동성은 피의 흐름과 부합된다.”⁸⁾ 여성으로서의 육체적인 욕망과 반항적 정서를 유동적인 피의 흐름으로 대치시킴으로써 이러한 욕망과 정서가 원초적이고 무의식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녀 나름의 독창적인 문체 실험이라고 볼 수 있다. 이미지리와 어휘 등도 자학적이고 반항적인 심태를 표현하기 위하여 여 사악·공포·허무·고독·사망 등의 정감을 불러일으키도록 고안되고 배치되었다. 그러나 플라스틱처럼 충동적이고 파편적으로 환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한다.

3. 黑夜의 의식

《여인》의 시에서는 黑夜란 상징적 함의가 밀도 높게 분포되어 있다. 이 ‘黑夜’란 이미지는 자이융밍의 여성주의적인 철학과 결합하여 독특한 의식의 형태로 까지 발전되고 있다. 심지어 그녀는 이 시집의 서언을 〈흑야의 의식黑夜的意識〉이라 명명하며 다음과 같이 선명하게 장기간 억압받고 은폐되었던 여성의 불우한 처지에 대해 일갈하고 있다.

8) Xiaohong Zhang, *The Invention of a Discourse: Women's Poetry from Contemporary China* (The Netherlands: Leiden University, 2004), 94쪽 참조.

인류의 반을 짐하지만, 여성은 탄생과 더불어 완전히 다른 하나의 세계와 마주치게 된다. 그녀의 이 세계에 대한 최초의 일별은 반드시 자신만의 情緒와 直覺을 띠게 된다……그녀는 전심전력으로 생명을 투사하여 하나의 黑夜를 창조하려는 것은 아닐까? 게다가 위기 중에 세계를 하나의 거대한 영혼으로 변형시키려는 것은 아닐까? 사실상, 매 여인은 모두 자신의 심연 속에서 끊임없이 泯滅하고 끊임 없이 認可되는 사적 고통과 경험을 대면하게 된다……이것이 최초의 黑夜로, 그것이 상승했을 때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특수한 국면과 각도를 가지는, 오직 여성에게만 속한 세계로 진입할 것이다. 이것은 구원의 과정이 아니라 徹悟의 과정이다.⁹⁾

전통적으로 ‘밤’과 ‘어둠’은 ‘낮’과 ‘밝음’에 대비되는 상징으로 ‘따뜻함’과 ‘풍요’가 아니라 ‘추위’와 ‘기아’를 암시하는 것이다. 전자의 상징들은 가치나 원칙, 사물들의 부정적인 측면들을 암시하는 반면에 후자의 상징들은 긍정적인 측면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의 문화적 전통 속에서도 이와 같은 ‘밤’과 ‘낮’의 대비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밤’은 옛날 중국 사람들의 우주론 속에서 달·땅·무덤·산의 그늘진 면 등과 함께 ‘음陰’의 영역에 속했고, ‘낮’은 태양·하늘·집터·산의 햇볕이 잘 드는 면 등과 함께 ‘양陽’의 영역에 속했다.”¹⁰⁾ 특히 여성은 ‘음’에 속하고 남성은 ‘양’에 속했다. 이와 같은 중국인의 이원 대립적인 철학적 사고는 우주 만물을 형성하는 근본적인 에너지로 ‘음’과 ‘양’의 두 기운을 설정하고, 이 두 기운의 끊임없는 조화와 순환을 강조하고 있다.

‘음’인 ‘黑夜’는 ‘양’인 ‘白晝’와 대립되는 자연 현상으로, 대자연의 활동이 휴식을 취하는 기간이요 다시 때가 되면 반복적으로 ‘백주’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다. 따라서 ‘흑야’는 ‘백주’를 위한 휴식기이기도 하고 ‘백주’가 싹트기 위한 토양이

9) 陳思和, 《中國當代文學史教程》(上海: 復旦大學出版社, 1999), 354쪽에서 재인용. 作为人类的一半, 女性从诞生起就面对着一个完全不同的世界, 她对这世界最初的一瞥必然带着自己的情绪和直觉……她是否竭尽全力地献身去创造一个黑夜? 并在危机中把世界变形为一颗巨大的灵魂? 事实上, 每个女人都面对自己的深渊不断毁灭、不断认可的私人痛楚与经验……这是最初的黑夜, 它升起时领我们进入全新的、一个有着特殊布局和角度的、只属于女性的世界, 这不是拯救的过程, 而是彻悟的过程

10) Xiaohong Zhang, *The Invention of a Discourse: Women's Poetry from Contemporary China* (The Netherlands: Leiden University, 2004), 123쪽 참조.

기도 한 것이다. '흑야'에 설정된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중국인들의 상상을 바탕으로 자이융밍은 '흑야의 의식'이란 하나의 상징적 시학을 창조하고 있다. 적어도 그녀의 이 '흑야의 의식'에는 "① 여성은 자연히 陰性에 속한다는 '성별 의식' ② 여성이 장기간 에너지와 빛을 얻지 못했다는 '荒原 의식' ③ 여성과 대자연의 신비하고 조화로운 '默契 의식' 등 세 가지 의식이 자리하고 있다"고 한다.¹¹⁾ 이것은 여성이 자기 자신에 대한 성의 정체성을 각인한 것으로, 오랜 세월 동안 남성 권력에 의해 억압받고 유린당한 여성성의 반발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여성 특유의 감성과 직관으로 敏銳하게 포착한 자신의 성별 의식을 예술적으로 상징한 것이기도 하다. 여성은 탄생과 더불어 두 개의 '흑야'의 세계를 직면하게 된다. 하나는 중국의 문화와 역사에 의해 본의 아니게 씌워진 인습의 굴레인 것이요, 다른 하나는 이것을 인지하면서 생기는 자발적인 삶의 굴레인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굴레를 융화시키는 과정에서 여성에게는 '사적 고통과 경험'이 수반되며, "이것은 구원의 과정이 아니라 徹悟의 과정이다"라고 그녀는 갈파하고 있다. 그녀의 〈독백獨白〉이란 시를 보면, '음'과 '양'에 의해 여성을 옥죄는 중국의 전통적인 인습의 굴레와 이것을 인지하고 저항하는 시인의 '흑야의 의식'이 잘 드러나 있다.

저는, 일개 狂想, 심연의 매력으로 충만한
당신이 우연하게 탄생시킨, 흙과 하늘
양자가 합일되어, 당신은 저를 여인이라 불렀고
저의 몸을 강화시켰지요

저는 물처럼 부드러운 하얀 깃털
당신이 저를 두 손으로 받쳐 들자, 저는 이 세상을 받아들였지요
육체란 형질을 입고서, 햇살 아래에서
제가 이토록 현혹적일 줄은, 당신은 믿기가 어려웠겠지요

저는 가장 온유하고 가장 이해심 깊은 여인
일체를 간파하고 일체를 분담하기 원하는
어느 겨울, 어느 거대한 킁킁한 밤을 갈망하는

11) 顏紅,〈論翟永明的“個體詩學”〉,《洛陽師範學院學報》(2005, 4), 32쪽 참조

내 마음을 왕국으로 삼아, 저는 당신의 손을 잡고 싶었지요
그러나 당신의 면전에서 저의 자태는 곧 일종의 참패였지요.

당신이 떠나갈 때, 저의 고통은
제 마음을 입으로부터 토해내고 싶었지요
사랑으로 당신을 죽인다면, 이건 누구의禁忌인가요?
태양은 온 세상을 위해 떠오르지요! 저는 오직 당신만을 위해
가장 증오에 찬 살뜰하고 달콤한 마음을 당신의 온 몸에 집중하겠어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저는 저의 방식이 있지요

온통 구조 요청 소리, 영혼도 도움을 구할 수 있나요?
넓고 큰 바다가 저의 혈액이 된다면 저를
석양의 발아래까지 추켜세울 수 있을까요, 저를 기억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제가 기억하는 것은, 결코 제 일생뿐만이 아니라는 것이지요¹²⁾

1연에서 여성은 ‘흙(음)과 하늘(양) 양자가 합일되어’ 우연하게 당신에 의해 탄생된 것으로 묘사된다. 이러한 ‘음’과 ‘양’의 대립과 융합은 전편에 걸쳐서 ‘여성’과 ‘남성’, ‘밤’과 ‘낮’, ‘죽음’과 ‘삶’, ‘증오’와 ‘사랑’이란 이원 대립적인 요소들이 계속해서 갈등과 조화를 이루며 끊임없는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이 시에서 자이용밍이 고백하고 있는 ‘당신’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나머지 연들을 살펴볼 때 남성성을 지칭하는 것 같다. 그러하기에 1연에서 여성을 우연하게 탄생시키고 그녀를 ‘여인’이라 부르고 그녀의 ‘몸을 강화’시키기도 한 것이다. 이러한 추상적인 남성성이 2연부터 매우 구체적인 남성성으로 변화한다. 그녀의 아름다움과 매력을 보여주고자 하는 대상, 그녀의 사랑을 바치고 싶은 대상으로부터 그녀의 적, 억압자, 심지어 증오의 대상으로까지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12) 翟永明 著, 《翟永明詩集》(成都: 成都出版社, 1994), 25-26쪽 참조. 我, 一个狂想, 充满深渊的魅力/ 偶然被你诞生. 泥土和天空/ 二者合一, 你把我叫作女人/ 并强化了我的身体// 我是软得像水的白色羽毛体/ 你把我捧在手上, 我就容纳这个世界/ 穿着肉体凡胎, 在阳光下/ 我是如此眩目, 是你难以置信// 我是最温柔最懂事的女人/ 看穿一切却愿承担一切/ 渴望一个冬天, 一个巨大的黑夜/ 以心为界, 我想握住你的手/ 但在你的面前我的姿态就是一种惨败// 当你走时, 我的痛苦/ 要把我的心从口中呕出/ 用爱杀死你, 这是谁的禁忌?/ 太阳为全世界升起! 我只为了你/ 以最仇恨的柔情蜜意贯注你全身/ 从脚至顶, 我有我的方式// 一片呼救声, 灵魂也能伸出手?/ 大海作为我的血液就能把我/ 高举到落日脚下, 有谁能记得我?/ 但我所记得的, 绝不仅仅是一生

일련의 과정은 여성의 심연에 존재하고 있는 여성성의 원형을 예리하게 포착하지 못하고서는 표현할 수 없는 것으로, 그녀 특유의 여성만의 감수성과 지성을 반항적 정서로 표현한 것이다.

2연에서 나타나는 여성의 모습은 중국의 전통적 여성상과 일치하는 면이 있다. '물처럼' 부드럽고 '하얀 깃털'처럼 가벼운 여성 형상은 남성에게 의해서 존재를 확인하게 되고 그 아름다움을 발산하게 된다. 성장과 더불어 시적 화자의 성격은 중국의 전통적인 여성상을 강요받으면서 길들여진다. '가장 온유하고 가장 이해심 깊은 여인' '일체를 간파하고 일체를 분담하기 원하는' 여인으로 거듭난다(3연). 그러나 그녀는 곧 여성으로 살아가야하는 것의 의미, 즉 성별에 따른 정체성을 깊이 자각하게 된다. 이러한 처참한 성별 의식은 그녀를 '어느 겨울, 어느 거대한 컴컴한 밤'과 동일시하게 된다. 이렇게 徹悟의 과정을 거친 '흑야의 의식'은 성적 차별에 대하여 분명한 저항 정신을 보여주고 있다. '흑야의 의식'에 대한 자각과 추구로 말미암아 앞서 부드럽고 '온유하고' '이해심' 깊었던 그녀는 이제 '가장 증오에 찬 살뜰하고 달콤한 마음'을(4연) 남성에게 쏟아 붓는 강한 여성으로 변모한다. 자신의 방식을 고집하는 저항 정신은 그녀의 주체적인 선택일 뿐만 아니라 남성 중심 전통사회 속에서 '무의미한 타자Nonsignificant Other'로 길들여졌던 여성의 운명을 극복할 유일한 대안일 것이다. 마지막 연에서 그녀는 여성이 처한 냉혹한 현실과 그 비극적 운명에 대하여 끊임없이 반추하고 있다. 거듭된 '구조 요청 소리'에도 도움을 주는 사람은 없고, 여성의 상처와 희생 속에 '대낮'은 일몰이 다가오면서 하루를 마감하고, 여성은 그렇게 누구에게도 기억됨이 없이 '흑야'의 세계로 편입되는 것이다. 더구나 이러한 여성의 삶이 그녀 혼자뿐만이 아니라 여성 모두가 그렇다는 공동체적인 인식이 그녀를 더욱 괴롭힌다.

'흑야'란 상징을 사용하여 남성 중심 세계의 횡포와 억압을 폭로하고 해부하려는 자이융밍의 글쓰기는 《여인》이란 시집 전체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여성만의 고유한 자아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확립하려는 시도로, 그 가운데는 양성 관계의 팽팽한 긴장감과 대립이 가로놓여 있다. 따라서 그 창작의 과정에는 극도의 저항감과 고통이 수반될 뿐만 아니라 여성 특유의 체험과 생명 의식이 배어

있다. 아울러 '흑야의 의식'은 '백주(남성)'의 세계의 의해 감추어진 공간이기도 하지만 여성이 유일하게 자아를 창조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아래의 시구들은 이러한 '흑야'의 상징적 함의를 잘 보여주고 있다.

저 원시의 암층을 위해 흑색 몽상의 뿌리들을 심었지요. 그들은
제 혈액에 의지해 성장했고
저는 세계를 目睹했지요
이런 까닭에, 저는 흑야를 창조해 인류가 재난에서 벗어나도록 했지요
(세계世界)¹³⁾

저는 당신에게 말하려고 해요. 누구도 흑야를 저지할 수는 없지요
흑야가 이미 이 가장자리에 진입한 걸요
(가장자리邊緣)¹⁴⁾

'흑야'와 대비하여 '태양'·'대낮白晝' 등이 남성 세계를 상징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다. <억측臆想>이란 시에서 "태양, 저는 회의하고 있지요(太陽, 我在懷疑)"¹⁵⁾, <인생人生>이란 시에서 "겉모양이 나약한 계집아이들은/ 백주가 도래할 때, 고개를 떨어뜨린 채 걸어가지요(外表孱弱的女兒們/ 當白晝來臨時, 你們掉頭而走)"¹⁶⁾ 등이 그 예로 이들은 분명하게 남성에게 억압당하고 평가 절하된 여성 세계를 폭로함으로써 양성 사이의 평등을 재창조해내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여성으로서 그녀가 경험한 무지와 억압을 철저하게 여성의 자아세계와 연결하여 심층적으로 해부하고, 그 심리적 고통과 상처를 시에 투영하여 드러나게 하는 방식이 강조된다.

13) 翟永明 著, 《翟永明詩集》(成都: 成都出版社, 1994), 16쪽 참조. 爲那些原始的岩層種下黑色夢想的根. 他們/ 靠我的血液生長/ 我目觀了世界/ 因此, 我創造黑夜使人類幸免于難

14) 상계서, 30쪽 참조. 我想告訴你, 沒有人去阻攔黑夜/ 黑夜已進入這個邊緣

15) 상계서, 7쪽 참조.

16) 상계서, 355쪽 참조.

4. 결론을 대신하며: “완성 후에는 또 어떠하지?”

《여인》에 수록된 20편의 시는 아래와 같은 〈끝結束〉이란 시로 마감하고 있다. 이 시는 여자 아이를 낳는 고통과 여자 아이로 태어난 후 그 애가 자아의 정체성을 찾아가며 부딪치는 시련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완성 후에는 또 어떠하지?”란 물음의 반복을 통하여 여성으로 태어나 겪어야만 하는 이러한 고통과 시련의 ‘끝’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완성 후에는 또 어떠하지? 그 대낮에
저는 공중에다 갓난아이를 높이 치켜들고는, 다시
최초의 중심으로 돌아왔어요, 한 그루 나무처럼
피는 지하로부터 용솨음치며 저를 높이 솟아오르게 했어요
저는 지금 참신한 눈동자를 크게 뜨고
하늘을 향하여 한숨을 내쉬지요: 완성 후에는 또 어떠하지?

봐요, 당신의 얼굴을 돌리지 마세요
칠 일은 일주일이 되어 저를 따라와요
성공에 대한 무수한 꿈들은 제 주위를 맴돌며
새로운 꿈을 쌓아 가지요, 그러면 하나의 이해할 수 없는
고난도 점차 그 실마리를 드러내어, 또다시
하늘에다 쓰게 되지요: 완성 후에는 또 어떠하지?

.....

저는 더는 관심을 갖지 않겠어요, 저의 이 은밀한 태아에 대해
십 개월의 울부짖음처럼 더욱 투명해지는
말없이 인내하며 결말을 영원히 기대하지만
일점 영감은 저로 하여금 킁킁한 밤의 방향을 주시게 하지요
겨울 내내 저는 나지막이 묻곤 하지요, 헤아릴 수 없는
미소로, 누가 저에게 말해줄 수 있나요: 완성 후에는 또 어떠하지?¹⁷⁾

17) 翟永明 著, 《翟永明詩集》(成都: 成都出版社, 1994), 43-44쪽 참조. 完成之後又怎樣? 在那白晝/
我把幼兒舉到空中, 又回到/ 最初的中心點, 像一株樹/ 血從地下涌來使我升高/ 現在我爭開嶄新的眼睛/

1연에서 여자 아이를 낳은 것을 하나의 '완성'으로 시인은 간주하고 있는데, 여기서 '완성'은 또 다른 의미 즉 《여인》이란 20수의 연작시를 '완성'하는 것이기도 하다. 말하자면, 이 시집의 '완성'을 출산의 고통으로 은유하고 있다. 시적 화자인 '저'는 마치 '한그루 나무'가 땅에서 물과 영양을 흡수하여 자라듯이, 산고의 과정도 자신의 '피'와 몸을 통한다는 상상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러나 갓 태어난 여자 아이를 어머니로서 바라보는 '저'는 기쁨과 함께 연민, 심지어 고통을 느끼고 있다.

2연은 "당신의 얼굴을 돌리지 마세요"로 시작한다. 남존여비 사상에 기인하여 여아의 탄생에 대한 사회적·인습적 거부감과 평가 절하하는 남성의 우월적 태도를 표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¹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여아-어머니'란 여성 자신의 이원대립적인 상징은 상호 융합되어 어머니는 성공에 대한 아이의 '꿈'을 기대하는 동시에 그녀가 이미 체험했던 양성 불평등에 의한 억압과 '고난'도 점차 '그 실마리를 드러내'게 된다. 이제 여성은 '여아'와 '어머니'란 두 개 자아의 충돌을 극복하고 서로 융합시키며, 자아의 정체성에 대한 회의와 추구를 확대시키고자 한다.

3연에서 시인은 새로운 여성의 탄생, 즉 '이 은밀한 태아'의 탄생을 '십 개월의 울부짖음'의 결과로 여기는데, 이것은 이 시집을 완성하는 것이 여아의 탄생과 같

并对天长叹: 完成之後又怎样?// 看呵, 不要转过你的脸/ 七天成为一个星期跟谁我/ 无数次成功的梦在我四周/ 贮满新的梦, 于是一个不可理解的/ 苦难渐渐端倪, 并被重新/ 写进天空: 完成之後又怎样? /……// 我不再关心你的隐秘这胎儿/ 更加透明像十月的哀号/ 永远期待结束但你们隐忍不语/ 一点灵犀使我倾心注视黑夜的方向/ 整个冬天我都在小声地问, 并莫测地/ 微笑, 谁能告诉我 完成之後又怎样?

18) Xiaohong Zhang은 "당신의 얼굴을 돌리지 마세요"와 "칠 일은 일주일이 되어 저를 따라와요"란 구절들이 성경에 있는 전고를 인용했다는 흥미 있는 주장을 한다. 앞 구절은 구약의 창세기에 나오는 롯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인용한 것이라고 한다. 극도로 타락한 도시 소돔에서 롯을 구하기 위해 신은 두 명의 천사를 내려 보낸다. 롯은 아내와 두 딸과 소돔을 탈출하면서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 것을 요구받는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금기를 어김으로써 소금기둥이 되었다는 것이다. 뒤 구절은 신이 먼저 아담을 창조하시고 여섯 번째 되는 날 아담의 갈비뼈로 이브를 창조한 이야기를 인용한 것이라고 한다. 아담의 외로움을 구원하고 인류를 영속시키기 위해 신에 의해 창조된 이브는 자연히 순종적이고 없어도 무방한 존재로 운명을 타고났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브의 탄생을 남성과 여성이란 성별의 차이를 만들었고, 이브는 아담과 달리 말을 할 수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Zhang은 이러한 성경의 전고들이 이 시와 어떠한 구체적인 연관성을 갖는지 설명을 주고 있지 않다. Xiaohong Zhang, *The Invention of a Discourse: Women's Poetry from Contemporary China* (The Netherlands: Leiden University, 2004), 96쪽 참조.

이 고통과 슬픔뿐만 아니라 기쁨도 따랐던 지난한 과정이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창조의 과정은 시인에게는 여성 자아의 정체성을 되새김질하는 과정이기도 했으며 남성우위의 사회 속에서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정의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보이지 않는 남성적 억압과 편견 아래에서 '말없이 인내'도 해보지만 그것은 곧 여성만의 공간을 의미하는 '흑야의 의식'을 낳게 만든다. 또한 이 시의 시간적 배경은 절묘하리만큼 낮은 것을 묻고 새로운 것을 잉태하는 '겨울'이다. "끝인 동시에 시작인, 정체인 동시에 동요인, 절망인 동시에 희망인, 죽음인 동시에 삶인"¹⁹⁾ '겨울 내내', 시인은 양 극단 사이에서 끊임없이 반추하고 있다. "완성 후에는 또 어떠하지?"

이 시는 여아의 출산이란 여성만이 경험하는 독특한 생명체험을 통하여 '여아-여인-어머니'라는 전통 여성상의 융합과정을 폭로하고 있다. 이런 불행한 융합과정은 숙명적이고 순환적이기 때문에 결코 '끝'이 없다. 따라서 시인은 "완성 후에는 또 어떠하지?"란 말을 반복함으로써 여성 운명의 숙명적 비극성에 대해 깊은 통찰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여인》의 시 전편에 걸쳐 진행되었던 '저'에 대한 정체성 찾기도 "완성 후에는 또 어떠하지?"란 질문에 의하여 원점으로 되돌려지는 효과를 갖는다. 그 결과 자신의 운명에 회의하고 저항하던 시인의 자아는 내적 분열 상태에 빠지고, 그것이 여성이 처한 집단적 운명이란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 즉 "운명에 반항함으로 시작하고, 운명을 포용함으로 끝나는"²⁰⁾ 여성의 비극적 운명을 심층적으로 해부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자이융밍의 서사 방식은 종래의 '남성적 글쓰기'와 '여성적 글쓰기'가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른가를 보여준 기념비적인 작품들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여성의 신체와 심리에 바탕을 둔 많은 문학적 이미지들과 사적이고 친밀한 여성적 어조를 사용함으로써, 기존의 남성 중심 글쓰기가 오랫동안 은폐해왔던 여성 내면의 독특한 생명체험을 중시하는 것이 바로 그녀의 글쓰기이다. 또한 그녀의 '흑야의 의식'은 남성 중심 세계의 횡포와 억압에 대한 저항 정신

19) 상계서, 96쪽 참조.

20) 纪芳芳, <当代女性诗歌中母女关系主题的书写与流变-以舒婷,翟永明,尹丽川的诗歌为例>,《保定师范学院专科学校学报》(2007.7), 19쪽 참조.

의 표출인 동시에 자신만의 내면공간을 확보함으로써 개인적인 생명체험을 표현 하려는 최소한의 몸부림인 것이다. 이러한 성별의식에 기초한 여성과 남성의 언어 사용상의 차이점은 그녀로 하여금 자신만의 특수한 언어를 창조하게 만들었고, 그것을 통하여 중국의 과거와 현재를 지배하는 남성 중심적 문화 규범에 대하여 가장 심각하고도 가장 성숙한 도전을 창조해내었다. 그녀의 도전은 중국 여성들의 비극적 정체성에 대한 세밀한 관찰과 거듭한 해부로부터 탄생한 생존을 위한 처절한 여성의식이다. 이 새로운 문화 현상에 대한 상징적인 길라잡이로서 그 대변인의 역할을 충분히 소화하고 있는 점에서 《여인》 시집의 문학사적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參考文獻〉

- Zhang, Xiachong. *The Invention of a Discourse: Women's Poetry from Contemporary China*. The Netherlands: Leiden University, 2004.
- Wang, Ping, ed. *New Generation: Poems from China Today*. Brooklyn, New York: Hanging Loose Press, 1999.
- Yeh, Michelle, ed. and trans. *Anthology of Modern Chinese Poetry*.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92.
- 陳洪子誠 劉登翰 著. 《中國當代新詩史》.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5.
- 唐曉渡 著. 《唐曉渡詩學論集》.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1.
- 思和 著. 《中國當代文學史教程》. 上海: 復旦大學出版社, 1999.
- 譚五昌 選編. 《中國新詩300首》. 北京: 北京出版社, 1999.
- 紀芳芳, <當代女性詩歌中母女關係主題的書寫與流變-以舒婷,翟永明,尹麗川的詩歌為例>, 《保定師範專科學校學報》(2007.7).
- 徐健, <翟永明: 在黑夜中獨白>, 《詩藝隨筆》(2005.9).
- 顏紅, <論翟永明的“個體詩學”>, 《洛陽師範學院學報》(2005, 4).
- 艾云, <翟永明: 完成之後又怎樣>, 《南方文壇》(2003.3).
- 王珂, <論20世紀前半期中國婦女詩歌的抒情模式及性別意識>, 《社會科學研究》(2002.2).

《女人》에 나타난 翟永明的 성별의식과 서사방식 211

王侃, <概念·方法·個案-“女性文學”三題>, 《文藝評論》(1999,2).

박정희, <翟永明 詩 研究>, 《中國現代文學》(29집), 서울: 한국중국현대문학학회, 2004.

鄭雨光, <朦朧詩 이후-세기말 중국 시단의 새로운 미학원칙들>, 《中國現代文學》(20집).

서울: 한국중국현대문학학회, 2001.

鄭雨光, <危機의 詩學: 90년대 시인들의 世紀末 意識>, 《中國現代文學》(17집), 서울:

한국 중국현대문학학회, 1999.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llustrate the main characteristics of Zhai Yongming's 翟永明 poem series "Women" 女人 in terms of its literary and historical context. By dismantling the effect of Sylvia Plath(1932-1963), the poem series "Woman" reflects Chinese women's poetics of the middle 1980s, which is invoked from the shadow of post-Misty poetry. The careful and intentional grouping of the 20 poems creates her own feminist poetics in form, language, and theme. This new driving force is strengthened through the construction of her particular gender consciousness and narrative method in her 20 poems.

Zhai Yongming's poems in "Women" display her perspectives on what womanhood is, with laying emphasis on gender difference and individuality. At the same time, her persistent metaphors and symbols of night consciousness for her gender awareness are visible throughout the poem series "Women." Therefore, this night consciousness, as apposed to day (male) consciousness, created by and for women is the only space that is able to achieve female self-identity.

Narrative method shown in "Mother" 母親 from the said series is very experimental and unconventional, because the poem deals with the psychological complexity of motherhood and daughterhood, as well as the ambivalent mother-daughter relationship. This method may have served as another source of supporters for molding new Chinese women's poetics, specifically to emphasize the female self-representation.

關鍵詞 : 翟永明, 자이응밍, 여성시가, 여인, 어머니, 흑야